

백제 1차 문자자료의 성격에 대하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Baekje Primary Textual Data

곽령(郭玲)^{••} · 장석(張碩)^{•••}

국문요약 최근에 들어 백제 1차 문자자료에 초기적인 이두문이 있다는 주장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의 기존 입장과 정반대이다. 본고는 백제의 금석문 자료와 목간 자료에 대해 다시 살펴봄으로써 백제 일차 문자자료의 성격을 다시 규명하였다.

2장에서는 금석문 자료 중에 쟁점이 있는 『무령왕지석』, 『무령왕비지석』,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 무령왕릉 출토 ‘사임신년작’명전, 송산리 육호분 출토 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에 있는 명문들은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이나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이 없고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백제가 중국 남조문화(南朝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이러한 자료들은 한문 자료이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백제 목간 자료를 살펴보았다. 주로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과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을 분석하였다.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에서는 백제 시기가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이 시기는 사언사구체(四言四句體) 시가이고 중국 고시가와 아주 비슷하다. 내용적으로 이 시기는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이나 비한문적인 표현이 없고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한시로 생각한다. 한편,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에는 이두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목간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 백제 문헌에 ‘교사(敎事)’가 없지만 신라 문헌에서 많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목간은 통일신라시대의 문헌이었을 것이다.

핵심어 백제, 이두, 차자표기, 무령왕릉, 금석문, 목간

- 차례**
- 서론
 - 금석문 자료
 - 목간 자료
 - 결론

1. 서론

현존 백제 일차 문자자료는 대략 금석 자료와 목간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부여 사택지적비』, 『무령왕지석』 등은 대표적인 금석 자료이고 부여 관북리 출토 목간, 부여 쌍북리 출토 목간 등은 대표적인 목간 자료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한문 자료로 보았다.¹

• 이 글은 중국국가사회과학기금을 받아 작성하였다(프로젝트 이름: 『한국어 차자표기 사전』 편찬, 프로젝트 번호: 21XY008).

[中國國家社科基金西部項目“《朝鮮語借字表記字典》編撰(項目編號: 21XY008)”的階段性成果.]

•• 중국 연안대학교(延安大學校) 외국어대학 조교수(제1저자)

••• 중국 연안대학교(延安大學校) 외국어대학 부교수(교신저자)

1 『이두연구』를 비롯한 이두 전문 저서, 「이두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을 비롯한 이두 전문 논문은 주로 고구려 이두, 신라 이두에 대해 많이 소개하였고 백제 이두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남풍현, 『이두연구』, 태학사; 이기문, 「이두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52, 진단학회,

그러나 최근에 학계의 기존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들이 나왔다. 김영욱²은 『무령왕지석』, 『무령왕비지석』,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 등에 초기적인 이두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재영³도 『무령왕지석』,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 무령왕릉 출토 ‘사임신년작(士壬申年作)’명전을 비롯한 많은 무령왕릉 출토 문헌에 초기적인 이두문이 있다고 보고 그 밖에 송산리 육호분 출토 ‘양관와위사의(梁官瓦爲師矣)’명전에도 이두가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 이승재⁴는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에 백제의 이두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⁵

초기적인 이두문은 학자에 따라 변체한문(變體漢文), 속한문(俗漢文), 변격한문(變格漢文), 한문(韓文) 등으로도 불린다. 초기적인 이두문은 한문으로서 어색하여⁶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의 모든 문장⁷을 가리키며 한자로 한국어를 기록하는 수단이다. 이와 반대로 정격한문(正格漢文, 즉 한문)은 한자로 중국 문언(文言)을 기록한다. 양자는 기록 방식, 기록 대상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따라서 초기적인 이두문을 한문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한문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잘못 해석하면 백제의 언어 역사와 관련된 연구 혹은 이두의 발전사와 관련된 연구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이두 문헌으로 해석된 백제 일차 자료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자료들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자 자료들은 금석문 자료와 목간 자료로 나눌 수 있어 차례로 고찰하겠다.

2. 금석문 자료

본장에서는 『무령왕지석』, 『무령왕비지석』,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 무령왕릉 출토 ‘사임신년작’명전, 송산리 육호분 출토 전을 차례로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성격을 규명해보겠다.

2.1. 무령왕지석

본절에서는 『무령왕지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령왕지석』의 앞부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 癸卯年伍月丙戌朔七日壬辰崩.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무령왕지석』은 일종의 묘지에 해당되고 ‘영동대장군백제사마왕(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은 묘지의 주인이고 ‘연육십이세(年六十二歲)’는 사망 당시의 나이이며 ‘계묘년오월병술삭칠일임진붕(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은 사망의 날짜이다. 한문으로 볼 때 (1)은 한문 문법에 맞는 좋은 문장이다. 이와 비슷한 묘지는 중국 남북조시기의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⁸

가. 晉故散騎常侍特進衛將軍尙書左僕射都亭肅侯琅耶臨沂王彬之長女, 字丹虎, 年伍十八, 升平三年七月廿八日卒.(『王丹虎墓誌銘』)

나. 晉故衛將軍左僕射肅侯琅耶臨沂王彬繼室夫人夏金虎, 年八十伍, 太元十七年正月廿二亡.(『夏金虎墓誌銘』)

(2가)에서는 ‘진고산기(晉故散騎)……자단호(字丹虎)’는 묘지의 주인이고 ‘연오십팔(年五十八)’은 사망 당시의

8 趙超, 『漢魏南北朝墓誌匯編』, 天津古籍出版社, 2008, 19~20쪽.

1981, 65~78쪽).

2 김영욱, 「백제 이두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003, 125~149쪽.

3 정재영, 「백제의 문자 생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003, 87~124쪽.

4 이승재, 『목간에 기록된 고대 한국어』, 일조각, 2017, 291~292쪽.

5 이승재는 부여 관북리 1호 목간, 부여 능사 4호 목간, 부여 쌍북리 102 제1호 목간 등에 이두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간들은 상태가 좋지 않고 결자가 많으므로 정확히 해독하기 어렵다(위의 책, 291~298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제외하였다.

6 남풍현, 앞의 책, 31쪽.

7 이기문, 앞의 논문, 75쪽; 이용현, 「문자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2007, 219쪽.

나이이며 ‘승평삼년칠월이십팔일졸(升平三年七月廿八日卒)’은 사망의 날짜이다. (2나)에서는 ‘진고위장군(晉故衛將軍)……하금호(夏金虎)’는 묘지의 주인이고 ‘연팔십오(年八十五)’는 사망 당시의 나이이며 ‘태원십칠년정월이십이망(太元十七年正月廿二亡)’은 사망의 날짜이다.

『무령왕지석』을 『왕단호묘지명(王丹虎墓志銘)』, 『하금호묘지명(夏金虎墓志銘)』과 비교해 보면 세 자료는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세 자료는 모두 묘지의 주인, 사망 당시의 나이, 사망의 날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중국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령왕릉의 묘지와 묘실(墓室)은 중국 남조문화(南朝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⁹ 그리고 출토된 유물 가운데 지식과 매지권(買地券)이 있는데 이들은 역시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무령왕지석』의 내용도 중국 묘지명의 영향을 받고 작성했을 것이다.

한편, 정재영¹⁰, 김영옥¹¹ 등 학자들은 (1)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였다. 그 원인은 문장의 어순이 한국어 어순과 같기 때문이다. 심지어 (1)에다가 한국어 조사와 어미만 추가하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寧東大將軍인 百濟 斯麻王은 나이[年] 六十二歲로 癸卯年 伍月 丙戌朔 七日 壬辰에 崩하였다.

(3)은 (1)의 번역문으로 (1)의 글자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한국어 조사와 어미만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문은 문제가 없지 않다. 번역문에 있는 ‘병술삭(丙戌朔)’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은 채 나열에 그치고 있는데 “이

9 주유홍,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百濟文化』 4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131~138쪽.

10 정재영, 앞의 논문, 114쪽.

11 김영옥, 앞의 논문, 133쪽.

달의 초하루는 병술일(丙戌日)임” 정도 보충해 주어야 한다.¹² 그래서 『무령왕지석』의 어순은 한국어 어순과 완전 일치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순히 한국어 어순에 맞는 것은 이두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심한다. (2)의 어순도 한국어 어순과 아주 유사하고 한국어 조사와 어미만 추가하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 晉의 故 散騎常侍이고 特進이며 衛將軍이고 尙書左僕射이며 都亭 肅侯인 琅耶 臨沂王彬의 長女는 字가 丹虎이고 나이[年] 伍十八로 升平 三年 七月 廿八日에 卒[卒]었다.

나. 晉의 故 衛將軍이자 左僕射 肅侯인 琅耶 臨沂 王彬의 繼室 夫人인 夏金虎는 나이[年] 八十伍로 太元 十七年 正月 廿二에 卒[亡]었다.

(4)에서 보듯이 『왕단호묘지명』과 『하금호묘지명』은 어순을 바꾸지 않고 한국어 조사와 어미만 추가하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왕단호묘지명』은 승평(升平) 3년(359년)에 새겨진 명문이고 『하금호묘지명』은 태원(太元) 17년(392년)에 새겨진 명문이며 각각 1965년, 1966년에 중국 남경에서 발견되었다. 왕단호와 하금호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들의 묘지명은 이두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어 어순만으로는 이두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시 (1)을 보자. 문장 자체는 한문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격한문(正格漢文)이다. 만약 이를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면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¹³ 혹은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¹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

12 권인한, 「무령왕릉 출토 명문들에 대한 어학적 고찰」,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2006, 121쪽.

13 남풍현, 앞의 책, 31쪽.

14 이기문, 앞의 논문, 75쪽; 이호현, 앞의 논문, 219쪽.

이상으로 『무령왕지석』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무령왕지석』의 앞부분은 한문 문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내용상으로는 전형적인 중국 남북조 시기의 묘지명과 차이가 별로 없다. 무령왕릉이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점, 『무령왕지석』의 구조가 전형적인 중국 남북조 시기의 묘지명 구조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령왕지석』은 한문 문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2. 무령왕비지석

본절에서는 『무령왕비지석』을 살펴보자. 『무령왕비지석』의 앞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丙吾年十二月百濟王大妃壽終

‘병오년십이월(丙午年十二月)’은 사망의 시간이고 문장에서 부사어의 구실을 한다. ‘백제왕대비(百濟王大妃)’는 묘지의 주인이고 문장의 주어이다. ‘수종(壽終)’은 수명(壽命)이 종(終)하였다라는 뜻인데 문장의 서술어이다. 한문으로 볼 때 (5)는 한문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문장이다.

여기 주목할 만 한 점은 ‘수종(壽終)’이다. 중국어에서 ‘수종’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중국 동한시기(東漢時期) 유희(劉熙)의 『석명(釋名)』에서는 ‘수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

老死曰壽終. 壽, 久也; 終, 盡也.(『釋名』)

중국어에서 자연적으로 사망하면 ‘수종’이라고 한다.¹⁵ 사서에는 무령왕비의 사망 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 지석

에 따르면 왕비는 자연 사망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한편, 김영욱¹⁶은 (5)를 ‘병오년 십이월에 백제왕의 대비가 수(壽)를 종(終)하였다’로 번역하고 (5)의 어순을 한국식 어순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하여 (5)를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보았다.

앞서 『무령왕지석』을 설명할 때 한국어 어순만으로는 이두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무령왕비지석』도 마찬가지다. 이를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려면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¹⁷ 혹은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¹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수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한반도 문헌을 조사해 보면 ‘수종’이라는 단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까지의 이두 문헌에 모두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한문 문헌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다.¹⁹ ‘수종’의 분포는 『무령왕비지석』이 한문 문헌임을 암시한다.

한편, 2.1.에서 무령왕릉이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무령왕비지석』은 무령왕릉의 출토 자료로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무령왕비지석』의 명문은 한문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무령왕비지석』의 성격을 다시 고찰하였다. 『무령왕비지석』의 첫 문장은 한문 문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좋은 한문 문장이다. 그리고 ‘수종’의 분포, 무령왕릉이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무령왕비지석』은 한문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

16 김영욱, 앞의 논문, 136~137쪽.

17 남풍현, 앞의 책, 31쪽.

18 이기문, 앞의 논문, 75쪽; 이용현, 앞의 논문, 219쪽.

19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竝赦前罪, 同爲太平之民, 以壽終於樂土, 不亦善乎?(『성종실록』 성종 10년 9월 12일 乙酉)

나. 人知其有隱而不用, 以壽終.(『선조수정실록』 선조 29년 8월 1일 丙申)
다. 家不貧, 然以儉爲度. 其母以壽終.(『숙종실록』 숙종 15년 11월 19일 壬子)

15 장인성의 논문에서 ‘수종(壽終)’을 정리한 바가 있다(장인성, 「무령왕릉 묘지를 통해 본 백제인의 생사관」, 『백제연구』 32,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0, 165~169쪽).

2.3.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

본절에서는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를 보겠다. 은팔찌에 새겨진 명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

(7)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자년 이월다리작(庚子年二月多利作)’이고 또 하나는 ‘대부인분이 백삼주이(大夫人分二百卅主耳)’이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겠다. ‘경자년이월(庚子年二月)’은 시간 명사이고 경자년(庚子年)으로 보아 520년으로 추정된다. ‘다리작(多利作)’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는데 한국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인(匠人)의 이름인 ‘다리(多利)’와 동사인 ‘작(作)’으로 해석한다.²⁰ 따라서 ‘다리작(多利作)’은 ‘주어 + 서술어’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남북조시기의 문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장이 확인된다.

(8)²¹

가. 永和六年八月廿日張寧作。(『張寧甄識』)

나. 興寧二年七月廿日桓氏芝作。(『桓氏造甄識』)

다. 年八月二日徐氏造。(『徐氏甄識』)

(8)은 중국 남북조 시기의 금석문 자료인데 구조적으로 볼 때 (7)과 아주 비슷하고 모두 ‘시간 + 사람 이름 + 작(作)/조(造)’로 되어 있다. 따라서 (7)은 한문 문법에 맞는 좋은 문장이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을 보겠다. 한문으로 볼 때 이 문장은 판단구(判斷句)에 해당된다. 즉 ‘대부인분(大夫人分, 대

부인의 몫)’은 주어이고 ‘이백삼주(二百卅主, 230銖²²)’는 목적어이다. 한문 판단구(判斷句)는 일반적으로 어기사(語氣詞)인 ‘야(也)’로 끝나는데 ‘이(耳)’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9)

가. 此亡秦之續耳。(『史記』권7)

나. 田橫, 齊之壯士耳。(『三國志』권35)

(9가)에서는 주어인 ‘차(此)’와 목적어인 ‘망진지속(亡秦之續)’이 합친 판단구이고 (9나)는 주어인 ‘전횡(田橫)’과 목적어인 ‘제지장사(齊之壯士)’가 결합된 판단구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耳)’는 판단구의 어기사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에 있는 명문을 분석하였다. 명문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모두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한편, (7)의 명문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한 학자도 있다. 정재영²³, 김영옥²⁴은 첫 번째 문장의 어순을 한국어 어순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이 구절을 이두로 해석하였다. 또한 정재영은 마지막의 ‘耳’를 한국어 종결어미로 해석하여 이 구절을 이두로 보는 또 다른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선, 첫 번째 증거를 보자. 앞서 『무령왕지석』, 『무령왕비지석』을 분석할 때 한국어 어순만으로는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차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증거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자년이월다리작(庚子年二月多利作)’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문장의 구조와 비슷한 (8)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8)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중국 금석문 자료로 이두와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경자년이월다리작(庚子年二月多利作)’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0 이 밖에 ‘多利作’을 무령왕비의 존호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기호철·배재훈, 「무령왕비 은팔찌 명문의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7,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4, 25~28쪽).

21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1』,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323~339쪽.

22 정재영은 ‘主’를 ‘銖’로 보고 무게의 단위명사로 해석하였다(정재영, 앞의 논문, 113쪽).

23 정재영, 앞의 논문, 114쪽.

24 김영옥, 앞의 논문, 145쪽.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경자년이월다리작(庚子年二月多利作)’을 분석하였는데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문장은 정격한문(正格漢文)이다. 이 문장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려면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²⁵ 혹은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²⁶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많지 않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경자년이월다리작(庚子年二月多利作)’은 초기적인 이두문보다 한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근거를 보자. ‘이(耳)’를 종결어미로 해석하는 견해인데 이때 ‘이(耳)’는 혼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²⁸ 그러나 현재로서는 백제 6세기 문헌에 혼독이 있다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많지 않다. 『백제신찬(百濟新撰)』에서 무령왕은 ‘도왕(鳴王)’ 혹은 ‘도군(鳴君)’으로 기록되었는데 여기서의 ‘도(鳴)’는 ‘시마’²⁹로 혼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신찬』은 전하지 않고 편찬자와 편찬 시기에 대해 알 수 없다. 다만 『백제신찬』의 일부 내용은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전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왕’, ‘도군’의 예가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도(鳴)’가 ‘시마’와 대응한 것만으로는 6세기의 백제어에 혼독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밖에 혼독과 관련해서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목간에서 기록된 ‘소리저이기신자여 흑야(小吏猪耳其身者如黑也)’라는 문장도 주목할 만하다. 김영욱³⁰은 여기서의 ‘저이(猪耳)’를 혼독하여 ‘돌귀’로 해석하

였다. ‘저이(猪耳)’를 ‘돌귀’로 해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저이(猪耳)’를 반드시 ‘돌귀’로 해독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백두현³¹은 ‘저이(猪耳)’를 혼독했는지 음독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장 전체는 순수 한문 문장으로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에 쓰인 ‘저이(猪耳)’만 혼독자로 읽기가 망설여진다고 덧붙였다.³² 따라서 현존 백제 문헌에서 혼독법이 존재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耳)’는 혼독할 수 없다. ‘이(耳)’는 혼독할 수 없으면 종결어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대부인분이백삼주이(大夫人分二百卅主耳)’를 분석하였는데 이 문장은 한문 문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판단구(判斷句)이다. 이 문장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려면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³³ 혹은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³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따라서 ‘대부인분이백삼주이(大夫人分二百卅主耳)’를 한문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의 명문을 살펴봄으로써 이 자료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명문 전체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한문 문법에 맞는 정격한문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는 한문 자료로 판단된다.

2.4. 무령왕릉 출토 ‘사임신년작’명전

본절에서는 무령왕릉 출토 ‘사임신년작’명전을 보겠다. 전에 있는 명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7, 184~185쪽.

31 백두현, 「당대 자료로 본 혼독법의 생성 시기 고찰」, 『구결연구』 45, 구결학회, 2020, 49쪽.

32 백두현은 이러한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猪耳’가 혼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였다(위의 논문, 49쪽).

33 남풍현, 앞의 책, 31쪽.

34 이기문, 앞의 논문, 75쪽; 이웅현, 앞의 논문, 219쪽.

25 남풍현, 앞의 책, 31쪽.

26 이기문, 앞의 논문, 75쪽; 이웅현, 앞의 논문, 219쪽.

27 남풍현은 한문의 격에 맞으려면 ‘다리작지(多利作之)’나 ‘다리작의(多利作矣)’ 정도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리작(多利作)’을 이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남풍현, 「상고시대에 있어서 차자표기의 발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16쪽). 그러나 (8)에서 제시한 예들을 보면 ‘작(作)’ 뒤에 ‘지(之)’나 ‘의(矣)’가 없다. 따라서 남풍현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28 비슷한 시기의 『迎日冷里新羅碑銘』에는 ‘耳’가 문장 끝에 나타나는데 남풍현은 이를 15세기의 종결어미 ‘-드녀’와 대응하였다(남풍현, 앞의 책, 75쪽).

29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무령왕은 사마왕(斯麻王)으로 기록된다. 여기서의 ‘사마(斯麻)’는 음가자이다.

30 김영욱, 「고대 한국목간에 보이는 석독표기」,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10)

(결자)壬辰年作

명문에서는 ‘임진년(壬辰年)’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512년의 문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명문의 내용은 대략 ‘사(土)가 임진년에 만들었다’ 정도이다. ‘사(土)’는 주어이고 ‘작(作)’은 서술어이다. 그리고 ‘임진년’은 시간 명사이고 부사어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어, 부사어, 서술어의 순서로 배열된 이 문장은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한편, 정재영³⁵과 김영욱³⁶은 한국어 어순을 근거로 삼아 이 명문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시간 명사 + 작(作)’의 배열 순서를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한 셈이다. 그러나 ‘시간 명사 + 작(作)’은 한문에도 맞는 구조이고 중국 남북조 시기의 금석문 자료에서도 많이 확인된다.

(11)³⁷

가. 太元七年八月廿日作。(『太元七年瓦識』)

나. 太元十二年八月廿日作。(『太元十二年瓦識』)

다. 太元十七年八月十日作。(『王須等造瓦識』)

라. 太元十六年十月一日作。(『太元十六年瓦識』)

(11)에서 남북조 시기의 명문을 제시하였고 모두 시간 명사와 동사인 ‘작(作)’이 결합된 구조이다. 이러한 예들은 (10)의 ‘임진년작(壬辰年作)’과 구조가 같지만 결코 이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어순만으로는 (10)을 초기적인 이두문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명문에서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³⁸ 혹은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³⁹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문을 초

기적인 이두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최근 송산리 29호분에서 전(搏)이 하나 새로 출토되었는데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라는 명문이 적혀 있다. 이 구절은 전형적인 한문 문장이고 이를 통해서 고분의 전(搏)은 건업(建業) 사람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업(建業)은 중국 남경의 옛 이름이므로 이 전(搏)은 곧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이다. 김환희와 이나은⁴⁰은 무령왕릉과 송산리 5호분, 6호분, 29호분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같은 계통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29호분의 전(搏)은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이와 같은 계통인 무령왕릉의 전(搏)도 중국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10)의 명문은 중국 사람에 의해 새겨졌을 것이고 그 명문이 한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증거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무령왕릉 출토 ‘사임진년작’명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명문은 한문 문법에 맞고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이나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이 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전에 있는 명문도 중국 사람이 썼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무령왕릉 출토 ‘사임진년작’명전은 한문 자료이었을 것이다.

2.5. 송산리 육호분 출토 ‘양관와위사의’명전

본절에서는 송산리 육호분 출토 ‘양관와위사의’명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에 있는 명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梁官瓦爲師矣

‘양관와(梁官瓦)’는 ‘양나라의 관용 기와’의 의미이고

35 정재영, 앞의 논문, 112쪽.

36 김영욱, 「백제 이두에 대하여」, 145쪽.

37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 앞의 책, 333~335쪽.

38 남풍현, 앞의 책, 31쪽.

39 이기문, 앞의 논문, 75쪽; 이용현, 앞의 논문, 219쪽.

40 김환희·이나은, 「송산리 29호분의 시기와 계통에 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 2021(3), 한국고고학회, 2021, 365~370쪽.

‘위(爲)’는 동사 ‘삼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師’는 모범의 의미이다. 마지막의 ‘의(矣)’는 어기사(語氣詞)로 긍정적인 어기를 나타낸다. 명문 전체는 대략 ‘양나라의 관용 기와 를 모범으로 삼았다’로 이해된다. 한문으로 볼 때 한문 문법에 맞는 좋은 문장이다.

한편, 이 명문에 대해 정재영⁴¹은 한국어 어순이 아니지만 그래도 백제식(百濟式) 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하고 그 원인은 ‘의(矣)’가 종결어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矣)’가 한국어 종결어미로 해석된 다른 예는 삼국시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고 통일신라 자료인 『영천청제비정원명(永川菁堤碑貞元銘)』에서 확인되며 그 이후의 자료인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 『개심사석탑기(開心寺石塔記)』에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하자면 현존 이두 자료에서 종결어미로 쓰인 ‘矣’는 8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양관와위사의’명전은 6세기 초의 자료이므로 여기의 ‘의(矣)’는 한국어 종결어미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한문으로 볼 때 여기의 ‘의(矣)’는 전혀 잘못 쓴 것이 아니다. 비슷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가.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論語』爲政)

나. 叔本年七十皓首, 朝夕拜安世曰: 道尊德貴, 先得道者則爲師矣. (『抱朴子』권14)

다. 一二問其過, 可以得爲師矣. (『前漢紀』권20)

(13)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모두 ‘위사의(爲師矣)’가 포함된다. 이때의 ‘의(矣)’는 어기사(語氣詞)로 긍정적인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관와위사의’의 ‘의(矣)’의 기능과 비슷하다.

앞서 송산리 29호분은 5호분, 6호분과 같은 계통에 속한다는 결론을 소개하였고 이러한 고분들의 전은 중국 사

람들이 만들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관와위사의’의 명문도 중국 사람에 의해 새겨졌을 것이고 한문 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상으로 송산리 육호분 출토 ‘양관와위사의’명전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명문인 ‘양관와위사의’는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그리고 송산리 육호분의 전은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양관와위사의’는 한문으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송산리 육호분 출토 ‘양관와위사의’명전은 한문 자료로 생각한다.

3. 목간 자료

본장에서는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과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성격을 다시 규명해 보고자 한다.

3.1.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

부여 능사 유적지에서 많은 목간들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 백제 시가가 적힌 목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宿世結業 同生一處 是非相問 上拜白來

형태적으로 이는 사언사구체(四言四句體) 시가에 해당되고 중국 고시가의 형태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시경(詩經)』의 「관저(關雎)」, 「권이(卷耳)」, 「도요(桃夭)」, 「정녀(靜女)」를 비롯한 많은 시가들은 사언사구체 시가이다.

내용적으로는 사구(四句)를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숙세결업(宿世結業), 동생일처(同生一處)’이고 다른 하나는 ‘시비상문(是非相問), 상배백래(上拜白來)’이다. 그리고 ‘숙세(宿世)’, ‘결업(結業)’을 비롯한 불교 용어가

41 정재영, 앞의 논문, 112쪽.

나타나므로 불교 사상을 반영한 시가이다. 조동일⁴²은 이 시가를 한시로 보고 “여러 번 살면서 맺은 업으로 한 곳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시비할 일 있어 묻고 답하라면 올라가 절하며 아뢰리라.”로 번역하였다.

한편, 김영옥⁴³은 이 시가를 한시가 아닌 백제 이두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시비상문(是非相問), 상배백래(上拜白來)’의 어순이 한국어 어순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두 구절을 차례로 보겠다. ‘시비상문(是非相問)’은 명사인 ‘시비(是非)’, 부사인 ‘상(相)’, 동사인 ‘문(問)’으로 분석된다. ‘시비(是非)’는 ‘문(問)’의 내용에 해당되고 곧 이 문장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어순은 한문의 일반적인 어순(서술어 + 목적어)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문에는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빈어전치(賓語前置)⁴⁴라는 규칙이 있다. 빈어전치(賓語前置)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 표기(之, 是, 唯 등)가 없이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경우가 있다.

(15)

가. 臣死且不避, 卮酒安足辭 (『史記』권7)

나. 老夫其國家不能恤 (『左傳』昭公21년)

(15가)에서는 목적어인 ‘사(死)’, ‘치주(卮酒)’가 각각 동사인 ‘피(避)’, ‘사(辭)’의 앞에 있다. 그리고 (15나)에서는 ‘국가(國家)’가 목적어인데 동사인 ‘恤(恤)’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시경』에서는 빈어전치(賓語前置)의 사례가 더 자주 보인다.

(16)

가. 民具爾瞻 (『詩經』小雅)

나. 既其女遷 (『詩經』小雅)

다. 我馬即同 (『詩經』小雅)

라. 高山仰止 (『詩經』小雅)

마. 景行行止 (『詩經』小雅)

바. 世德作求 (『詩經』大雅)

위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모두 사언(四言)으로 되어 있으므로 (14)의 구조와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이(爾)’, ‘여(女)’, ‘아마(我馬)’, ‘고산(高山)’, ‘경행(景行)’, ‘세덕(世德)’은 모두 목적어인데 각각 동사인 ‘참(瞻)’, ‘천(遷)’, ‘동(同)’, ‘앙(仰)’, ‘행(行)’, ‘작구(作求)’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의 구조는 ‘시비상문(是非相問)’과 같고 전형적인 빈어전치(賓語前置)의 예시이다.

이상으로 중국 고전과 『시경』에 나타난 빈어전치(賓語前置)의 예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한문에서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한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시비상문(是非相問)’은 이상한 한문 문장이 아니다.

계속해서 ‘상배백래(上拜白來)’를 살펴보겠다.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은 ‘백래(白來)’인데 이를 ‘사되러 온다’로 번역할 수 있다. 즉 ‘백(白)’과 ‘래(來)’는 모두 동사인데 ‘백(白)’은 ‘래(來)’의 목적이 된다. 중국 남북조시기의 한역불경(漢譯佛經)에서는 ‘백래(白來)’와 구조가 비슷한 문장이 다수 확인되었다.

(17)

가. 我今饑渴, 甚大困厄, 願尊者入城, 見我母者, 願爲我語, 速看我來. (『雜寶藏經』)

나. 女言: “我能剃頭髮.” 佛言: “歸報汝母, 剃頭髮來.” (『佛說學鄧女經』)

다. 一一尊神, 復各與眷屬, 皆悉會來. (『修行本起經』)

(17가)에는 ‘속간아래(速看我來)’가 있는데 ‘속간아(速看我)’는 ‘래(來)’의 목적어이다. (17나)에서는 ‘체두발래(剃頭髮來)’가 확인되는데 ‘체두발(剃頭髮)’은 ‘래(來)’의 앞에 있

4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133쪽.

43 김영옥, 앞의 논문, 140~144쪽.

44 빈어전치(賓語前置)는 목적어가 동사 혹은 개사(介詞) 앞에 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고 역시 ‘래(來)’의 목적이다. (17다)에는 ‘개실회래(皆悉會來)’가 있는데 ‘래(來)’의 목적인 ‘회(會)’는 그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속간아래(速看我來)’, ‘체두발래(剃頭發來)’, ‘개실회래(皆悉會來)’는 ‘백래(白來)’의 구조와 비슷하고 모두 ‘...러 오-’로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상배백래(上拜白來)’는 한문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 아니다.

한편, 이 시가는 대략 6세기 중후반⁴⁵의 사언(四言) 시가이고 불교사상이 반영된다. 『시경』의 대부분 한시는 사언(四言)으로 되어 있고 (17)을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남북조 시기의 한역불경(漢譯佛經)에도 사언(四言) 구문이 많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41년에 모시박사(毛詩博士), 『열반경(涅槃經)』 등이 백제에 들어왔다.⁴⁶ 중국의 사서인 『남사(南史)』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였다.⁴⁷ 따라서 이 시가는 저자가 『시경』과 한역불경(漢譯佛經)의 영향을 받고 지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한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상으로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출토 목간 중에서 백제 시가가 확인되었는데 이 시가를 이두로 해석한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시가는 사언사구체(四言四句體)에 해당되고 중국 고시가와 아주 비슷하다는 점, 시가의 제3구와 제4구에서 나타난 빈어전치(賓語前置), ‘동사 + 래(來)’의 구조는 한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한문에 어긋난 표현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가는 이두가 아닌 한시이었을 것이다. 또한 『시경』과 한역불경(漢譯佛經)은 6세기 중엽에 백제에 들어왔고 이 시가는 6세기 중후반에 지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가는 저자가 『시경』과 한역불경(漢譯佛經)의 영향을 받고 지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한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은 한문 자료로 해석된다.

3.2.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

2005년 10월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에서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유적을 조사하였는데 목간 1점을 발견하였다. 목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宅教禾田 犯兄害為教事

이승재⁴⁸는 이를 백제의 이두로 보고 ‘택(宅)이 관할하는 화전(禾田)들을 범(犯)한 형(兄)을 해(害)하라고 명령하신 일’로 해석하였다. ‘교사(敎事)’는 ‘기신 일’ 혹은 ‘기실 일’로 읽을 수 있고 신라 문헌은 물론 고려 문헌, 조선조 문헌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18)을 이두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18)은 반드시 백제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는 이 목간의 출토 상황을 기록하였다. 이 목간은 석축우물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완형의 편병(扁瓶) 1점과 같이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목간이 나온 유구(遺構)를 통일신라 생활유구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목간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의 통일신라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강종원⁴⁹, 윤선태⁵⁰, 하시모토 시게루⁵¹를 비롯한 역사학자들도 이 추론을 지지한다. 만약 이 목간은 백제 목간이 아니라면 목간에 적힌 목서를 백제 이두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목간에 있는 ‘교사(敎事)’도 주목할 만하다. 현존 백제 문헌에서는 ‘교사(敎事)’가 확인되지 않지만 신라 문헌에서는 많은 용례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울진봉평

48 이승재, 앞의 책, 292쪽.

49 강종원, 「부여 동남리와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3, 한국목간학회, 2009, 248~249쪽.

50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2016, 392쪽.

51 하시모토 시게루, 「동아시아사와 신라 목간 연구」, 『신라사학보』 59, 신라사학회, 2023, 46쪽.

45 윤재석, 『한국목간총람』, 주류성, 2022, 84쪽.

46 聖王十九年,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 涅槃等經義, 并工匠畫師等, 從之. (『三國史記』 권26)

47 中大通六年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並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并工匠畫師等, 並給之. (『南史』 권79)

리신라비(蔚珍鳳坪里新羅碑)』에서는 ‘소교사(所敎事)’가 확인되고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에서는 ‘왕교사(王敎事)’가 확인되며 『경주남산신성비(慶州南山新城碑)』에서는 ‘죄교사위문교령서사지(罪敎事爲聞敎令誓事之)’가 확인된다. 금석문 자료뿐만 아니라 월성 해자 출토 목간에서도 ‘교사(敎事)’가 확인된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이 목간은 백제 목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⁵²

이상으로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목간의 내용은 이두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목간의 출토 상황, ‘교사(敎事)’가 백제 문헌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목간은 백제 목간보다 통일신라 시대의 목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은 이두 자료가 맞지만 백제 자료는 아니다.

4. 결론

본고는 백제의 금석문 자료와 목간 자료에 대해 다시 살펴보으로써 이러한 문헌들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현존 백제 일차 문자자료는 모두 한문 자료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금석문 자료 중에 쟁점이 있는 『무령왕지석』, 『무령왕비지석』,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 무령왕릉 출토 ‘사임신년작’명진, 송산리 육호분 출토 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에 있는 명문들은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이나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이 없고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백제가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이러한 자료들은 한문 자료이었을 것이다.

3장에서는 백제 목간 자료를 살펴보았다. 주로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과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을 분석하였다. 부여 능사 유적지 출토 목간에서는 백제 시가가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이 시가는 사언사구체(四言四句體) 시가이고 중국 고시가와 아주 비슷하다. 내용적으로 이 시가는 한문으로서 어색한 부분이나 비한문적(非漢文的)인 표현이 없고 한문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작성하였다. 그래서 이 시가는 한시로 생각한다. 한편,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출토 목간에는 이두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목간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 백제 문헌에 ‘교사(敎事)’가 없지만 신라 문헌에서 많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목간은 통일신라 시대의 문헌이었을 것이다.

52 백제 목간에서 ‘교사(敎事)’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백제 목간이 수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현존 목간 문헌뿐만 아니라 금석 문헌에서도 ‘교사(敎事)’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사(敎事)’는 백제시 표현이 아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원, 「부여 동남리와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3, 한국목간학회, 2009.
- 권인한, 「무령왕릉 출토 명문들에 대한 어학적 고찰」,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2006.
- 기호철·배재훈, 「무령왕비 은팔찌 명문의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7,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4.
- 김영옥, 「백제이두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003.
- _____, 「고대 한국목간에 보이는 석독표기」,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2007.
- 김환희·이나은, 「송산리 29호분의 시기와 계통에 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 2021(3), 한국고고학회, 2021.
- 남풍현, 『吏讀研究』, 태학사, 2000.
- _____, 「상고시대에 있어서 차자표기의 발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2006.
- 백두현, 「당대 자료로 본 훈독법의 생성 시기 고찰」, 『구결연구』 45, 구결학회, 2020.
- 윤선태, 「한국 고대목간의 연구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2016.
- 윤재성, 『한국목간총람』, 주류성, 2022.
- 이기문,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農檀學報』 52, 진단학회, 1981.
- 이승재, 『목간에 기록된 고대 한국어』, 2017, 일조각.
- 장인성, 「무령왕릉 묘지를 통해 본 백제인의 생사관」, 『백제연구』 32,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0.
- 정재영, 「백제의 문자 생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200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
- 주유홍,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百濟文化』 4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 문화재센터 편, 『부여 충화면 가화리 유적,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유적』,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 하시모토 시게루, 「동아시아사와 신라 목간 연구」, 『신라사학보』 59, 신라사학회, 2023.
-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1』,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趙超, 『漢魏南北朝墓誌匯編』, 天津古籍出版社, 2008.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Baekje Primary Textual Data

Guo, Ling · Zhang, Shuo | Yan'an University

The academic community accepted that there was no Baekje Idu. But recently there began to be claims for the existence of Baekje Idu. This paper reviewed the Idu of Baekje. It was concluded that there is no Baekje Idu in the existing literature.

In Chapter 2, we looked at the tombstone of King Muryeong, the tombstone of Queen Muryeong, the silver bracelet unearthed from The Tomb of King Muryeong, the brick from The Tomb of King. The Tomb of King Muryeong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The text materials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ng Muryeong and the gold stone materials from the Period of the North and South Dynasties of China are compared. As a result, all the texts were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n Chapter 3, we looked at the literature of Wooden strips. In previous studies, the word order of phrases 3 and 4 of the Baekje poem were regarded as Korean word order and this poem was interpreted as Idu. But this kind of structure is common in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so it is not a bad expression in Classical Chinese grammar. On the other hand, it is clear that Idu exists in the Wooden strips of Dongnamri. However, the Wooden strips of Dongnamri is not the Wooden strips of Baekje, but it is the Wooden strips of the Unified Silla.

Keywords Baekje, Idu, Chajapyogi, the Tombstone of King Muryeong, Epigraphy, Wooden Tablets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